

## Narrative Inquiry into Becoming a Catholic Educator

Yulok Kim\*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narrative inquiry to explore the process of change in Catholic school teachers' life experiences as they internalise Catholic educational philosophy as their own and 'becoming' Catholic Educators.

**[Contents]** Underpinning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becoming Catholic educators was their faith in a God who loves human beings. This led Catholic educators to care for the lives of their learners, to integrate culture, faith and life in thei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nd to form communities of communion.

**[Conclu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process of becoming Catholic educators, a Christian human perspective is the basis of their understanding of the human person and the world and the founda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y. Through this, Catholic educators live an integral life process that transforms them into 'Educators of Life'.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on the spiritual support of Catholic educators.

**[Keywords]** Catholic educators, Christian humanistic perspective, Narrative inquiry, Teacher identity

This is a reworked version of the PhD thesis of Yulok Kim (2024),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orresponding to** Yulok Kim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yulokrscj@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김울옥

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학교 교사들의 삶의 경험 이야기 속에서 가톨릭 교육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가톨릭교육자로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탐구하려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의 경험을 구성하는 삶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며,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톨릭교육자가 되어가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교육의 바탕으로 삼았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생명을 돌보았다. 자신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인간 역사와 문화에 담긴 진리 탐구와 실천을 통해 문화와 신앙과 삶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유와 사랑으로 공동선을 실천함으로써 친교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헌신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 가톨릭학교가 가진 전인교육과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는 ‘생명의 교육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교육자로 ‘되어가는’ 과정은 가톨릭교육자의 자기 이해 즉, 그리스도교 인간관에 기초한 종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교육활동과 실천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교육자들의 자기 이해를 심화하는 영적 양성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가톨릭교육자의 영성적 지원을 위한 이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가톨릭교육자, 그리스도교 인간관, 내러티브 탐구, 교사 정체성

## I. 들어가는 글

“가톨릭학교가 일반 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톨릭학교 교사가 일반 다른 학교의 교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

가톨릭학교에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질문이다. 가톨릭학교를 운영하는 수도회의 수도자로서 가톨릭교육이 수도회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이라 여겼지만, 막상 무엇이든 답을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에 담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오래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모습은 가톨릭학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교사들이나 교생실습생들, 다른 일반학교에서 근무 경험을 가진 교사들에게 분명 다른 모습으로 인식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존중해주어요”,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학교를 많이 찾아오는 것이 놀라워요”, “기간제 교사들을 배려해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교사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신뢰의 분위기가 느껴져요”와 같은 학습자들과 동료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가톨릭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에서는 가톨릭학교 교사들의 어려움도 들었다. “가톨릭학교 교사가 아니었더라면 덜 괴로웠을 것 같아요.”

가톨릭학교 교사들이 갖는 어려움은 가톨릭학교가 지닌 교육목적과 관련된 것이었다. 가톨릭학교는 교회의 현존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학교의 일반적 특징인 “문화적 유산과의 생생한 만남을 통한”(The Catholic School, 1977, 26항) ‘전인교육’의 사명을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세계와 인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신앙에 비추어”(Gravissimum Educationis, 1965, 8항) 볼 수 있게 하는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이 사명은 가톨릭학교의 교육적 사명을 살아가는 가톨릭교육자들을 통해 실현된다. 가톨릭교육자는 “가톨릭학교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주역”이기 때문이다(Gravissimum Educationis, 1965: 8항; La Scuola Catt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1997: 19항).

한국 사회의 교육현실 속에서 가톨릭학교는 가톨릭학교 정체성 구현의 어려움, 사립학교로의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가톨릭적인 교육의 부재, 교회 내 관심 부족, 교원양성 부족, 종교교육의 어려움 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Ahn, 2013: 134-200). 특히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선발에서 가톨릭학교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교사 양성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가톨릭학교를 위한 별도의 교사 양성이나 교사 선발에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가톨릭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은 가톨릭학교가 교사를 임용한 이후부터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미 가톨릭학교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재교육도 쉽지 않다. 보편교회가 제시하는 가톨릭교육 관련 교회 문헌을 접하고 배우는 기회도 많지 않다. 각각의 가톨릭학

교가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직 문화를 통해 가톨릭교육철학을 교사들에게 전수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가톨릭교육 철학의 전달과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가톨릭학교 대다수의 교사는 각 학교의 교육철학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나, 가톨릭교회가 갖는 보편적인 교육 사명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Kim, 2022: 163-167; Kwon, 2011: 98-102).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학교 교사들<sup>1)</sup>의 삶의 경험 이야기 속에서 가톨릭 교육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가톨릭교육자로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이해하려는 것이다. 본고에서 ‘되어가기’는 가톨릭학교의 교사가 가톨릭교육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가톨릭교육철학을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에서 가톨릭 학교의 목적과 사명을 실현하고자 헌신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관계적 맥락에서 자기 경험에 담긴 정체성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를 깊게 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의 자기 이해는 교사의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영역 즉, 학습자와의 관계’, ‘교수-학습활동’,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 ‘교직에 대한 이해’의 범주와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퍼즐은 다음과 같다.

연구 퍼즐 1.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의 경험을 구성하는 삶의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연구 퍼즐 2.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톨릭교육자가 되어가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

1) 본 연구에서 ‘가톨릭학교의 교사들’은 넓은 의미에서 가톨릭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가톨릭학교라는 맥락 속에서 한 다발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하나의 전문 직업인”(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1982: 16항)으로, 가톨릭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가톨릭학교의 교육철학을 아직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반면, ‘가톨릭교육자’는 가톨릭학교의 교육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지식의 전수”를 넘어 “인격형성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한다(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1982: 16항). 가톨릭교육자는 “학습자, 부모, 교사, 교장, 비교사 직원 등 각 부류의 사람들 모두의 접촉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공동체의 구조 안에서 학교를 전인교육의 장으로 만들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1982: 22항), 수업을 통한 교육활동뿐 아니라 학교의 행정 업무를 포함한 교육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교사를 탐구대상으로 한다. 가톨릭교육자 한 명 한 명이 가톨릭학교의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때 가톨릭학교는 비로소 가톨릭학교이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톨릭교육자

가톨릭교육자는 “가톨릭학교의 특정한 사명을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그 학교의 생활과 학습을 특징짓는 그리스도교적 분위기를 특히 책임지는” 사람들이다(The Catholic School, 1977: 73항). 가톨릭교육자는 학교가 갖는 일반적 특징에 따라 “내면으로부터 인간의 발전을 도모하여” “전체 인격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향”한다(The Catholic School, 1977: 29항). 동시에 가톨릭학교의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는 복음화를 “그들의 증언과 행동으로”(The Catholic School, 1977: 78항) 드러내는 사람이다.

가톨릭교육자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며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리스도교 인간관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톨릭학교 교육사업 전체의 토대”이며, “가톨릭학교가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는 귀감”이다(The Catholic School, 1977: 34-35항). 토마스 그룹은 이것을 ‘후마니타스(humanitas) 인간론’이라고 하였다. 후마니타스 인간론을 지닌 가톨릭교육자는 인간에 대한 긍정과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갖는다(Groome, 2021: 137-143).

가톨릭교육자는 교수-학습을 통해 ‘문화와 신앙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가톨릭교육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과 같이(Lumen Gentium, 2013: 9항) 인류의 문화적 유산은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에 담긴 진리와 지혜, 지식과 창의성의 특정한 상황을 초월하는 가치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가톨릭교육자는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을 파악하고 획득하고 동화하도록 도움으로” 학생들을 “영원한 실재로 안내”하도록 요청받는다(Educating to Intercultural Dialogue in Catholic Schools: Living in Harmony for a Civilization of Love: 20항). 이로써 가톨릭교육자는 학습자가 “신앙과 생활의 인격적 통합”에까지 나아가게 한다(The Catholic School, 1977: 44항).

가톨릭 교육자들이 실천하는 ‘신앙과 생활의 통합’은 학습자들이 “자기 형제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섬기고 보다 살기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투신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The Catholic School, 1977: 45항). 즉, 학습자들이 인간 존재의 깊은 핵심에 자리한 영적 성향을 바탕으로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초월적 존재의 만남을 원하는 자기초월적 태도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는 단지 종교 교사에게만 맡겨진, 종교 수업 시간에만 해야 하는 것이거나 종교 진리에 대한 동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 삶의 방식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또는 사람들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는 궁극의 가치라고 부르는 것과의 관계인 영성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학습자들이 ‘성사적 우주론’을 지니도록 돕는 것이다. 성사적 우주론은 세상이 선물이고 관대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가장 평범한 것

에도 항상 ‘그 이상의 것’이 있고, 그것이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에서 은혜롭다는 시선을 갖는 것이다(Groome, 2021).

가톨릭교육자들이 가톨릭학교가 지닌 전인교육과 복음화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 가톨릭교육자는 학습자들이 피조물과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며, 그 사랑이 자기 삶의 구세사의 일부임을 알도록(The Catholic School, 46항 참조) 이끌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톨릭교육자는 학습자들이 그리스도교 형제애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에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The Constitution and Directories of Catholic School Education in Korea, 2021: 18).

이재용 & 최준규(2023)에 따르면, 가톨릭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는 가톨릭학교의 정체성, 교육철학, 교육적 사명의 구현에 관한 연구(Won, 2005; Choi & Kim, 2008; Koo, 2009; 2011a; Kim, 2017; Lee, 2020), 종교교육을 주제로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가톨릭학교 내 종교교육과 종교 교과서 제작에 관련된 교육적, 법률적, 실천적 논쟁과 방안 연구(Sung, 2001; Choi, 2005; Kim & Cho, 2018; Kim, Lim & Kim, 2019; Kim, 2020), 그리고 가톨릭 교사 또는 종교 교사의 신원과 사명, 역할과 영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Lee & Kim, 2017; Kim, 2017; Kim & Kim, 2019; Kim & Kim, 2021; Kim, 2022, 2023; Yang & Choi, 2023).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학교 관련 논문이 부족한 현상은 국내에서 가톨릭학교 수가 적고, 대학 내 가톨릭교육학을 다루는 전공이나 학과가 없었다는 점, 가톨릭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철학과 신학,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학문적 연구의 한계가 있다(Lee & Choi, 2023: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교회가 가톨릭학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으며(Gravissimum Educationis, 2013: 5항), 가톨릭교육이 가톨릭교육자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가톨릭교육자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 2. 교사 정체성과 되어가기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규범과 역할 기대를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이 현재 어떤 교사이며 앞으로 어떤 교사로 살아가고 싶은지와 같이,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기를 이해하고 바라보며 이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8: 498-504). 교사 정체성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교사’에 주목하여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내면의 교사가 갖는 성실성과 온전성은 교사의 정서적 전문성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연결된다(Palmer, 2002). 소명 의식은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되고 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이다(Kwon & Kim, 2017). 그러므로 소명 의식을 내면

화하고 자신의 직무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가지고 있던 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끊임없이 정당화해야 한다(Seung, Choi & Oh, 2020).

교사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들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교사 정체성은 교사로의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교사 정체성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 관심사, 취미와 같은 개인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Mockler, 2011), 교사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학교 맥락 및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자기 이해와 실천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Bukor, 2015). 둘째, 교사 정체성은 맥락이나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교사는 자신이 처한 맥락의 영향 아래 놓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주체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간다(So & Choi, 2019). 교사 정체성은 교사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회적 환경 및 관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형성해 간다. 교사의 삶에 담긴 다양한 요소들은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사의 삶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된다. 따라서 교사 정체성을 통한 교사의 성장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바탕이며 근간이 된다(Son, 2013). 셋째, 교사 정체성은 끊임없이 구성되는 삶의 연속적인 과정이다(Jung, 2013). 에릭슨에게 정체성은 자신의 내부에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핵심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Park, 2003). 정체성은 시간을 통한 변화이고, 과정(process)으로서 삶의 전체적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 정체성은 각 개인 교사의 삶에서 유동적으로 구성 혹은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삶의 통합적인 변화과정으로서 교사의 살아온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Jung, 2013).

### 3.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경험의 고유한 성격을 탐색하는 일에서 시작된다(Kwag, 2021). 왜냐하면 “우리는 내러티브에 의해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을 내러티브로 살기 때문”(MacIntyre, 2021: 212)이며, “인간 정체성은 특정한 내러티브를 지속하는 능력”(Giddens, 1991: 54)에 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최초의 즉각적인 경험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그 경험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과정 안에서 지속적인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Kang, 2020; Yeom, 2001). 그것은 일종의 해석학적 작업으로, 그 경험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하는 과정이다(Chang, 2021).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는 1) 현장에 존재하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2)로 이동: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4)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5) 연구 텍스트 작성

하기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단계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Clandinin, 2015). 서경혜(2017)에 따르면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삶의 한 가운데에서 만나서 체험을 나누며 재해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경험을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러티브적 구성을 통해 개별적 경험들이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며, 각각의 경험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에 비추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Chang, 2021).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 이야기를 말하고, 경청하고 응답함으로써 그 삶에서 가톨릭교육자로 ‘되어가는’ 삶의 경험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고자 서사적 대화 방식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사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교사를 교실 사태 속의 한 부분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존재론적 관점에서 교사를 바라보고자 하기 때문이다(Kwon, 2022). 그것은 교사 정체성의 되어가기 과정에 집중하거나(Kim & Chung, 2015; Kim, 2007; Lee, 2005; Shin & Lee, 2016) 환경과의 접촉에 초점을 두는(Kim, 2015)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의 되어가기 과정이 자기 성장이라는 내적 여정과 교육활동으로서의 외적 여정이 맞물려 있는(Conway & Clark, 2003: 476) ‘삶의 통합적 변화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때 교사 정체성은 사회적 주체로서 개인이 갖는 존재 의미의 형성과 변화양성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렌즈가 될 수 있다. 즉, 교사 정체성은 ‘살아온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가지는 실천적 지식,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태도와 전망을 드러내므로(Candinin, 2003), 내러티브 탐구가 교사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 선정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가톨릭교육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참여자는 가톨릭학교에서 현재 교육활동을 하고 있거나 교육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선정하였다. 둘째, 가톨릭학교의 가톨릭 신앙을 지닌 신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가톨릭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활동을 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 수도자와 평신도를 함께 선정하였다. 이는 가톨릭학교 내의 봉헌생활자<sup>3)</sup>와 평신도의 공동사명을 실천하도록 한 보편교회<sup>4)</sup>의 가르침을 고려한 것이다.<sup>5)</sup> 이러한 기준에 근거

2) 내러티브 탐구에서 구성하는 텍스트는 객관적 텍스트라기 보다는 경험적이고 간주관적인 텍스트임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라는 용어보다는 ‘현장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Clandinin, 2013: 46).

3) 봉헌생활은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는 봉헌생활회(수도회와 재속회) 회원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축성 생활”이라고 하며, 하느님께 봉헌된 삶이라는 의미에서 “봉헌 생활”이라고도 한다.

4) 보편교회는 가톨릭을 의미하는 그리스 말 καθολικός(katholikos)이 ‘보편적인’을 뜻하는 데서, 가톨릭교회를 의미한다. 교회가 보편적인 이유는 첫째로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교회가 구원의 완전하고 충만한 방법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전 인류에게

하여 연구 초기에는 5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개인의 경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3명으로 축소하여 선정하였다(Hong, 2023).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 연구참여자<br>(가명) | 성별 | 직위        | 교과목 | 가톨릭학교<br>근무경력(년) | 전체교직<br>경력(년) | 세례연한 |
|---------------|----|-----------|-----|------------------|---------------|------|
| 이사랑           | 여  | (전)교감     | 생물  | 33               | 33            | 43   |
| 남민음           | 남  | (현)교사     | 역사  | 26               | 26            | 57   |
| 이소망           | 여  | (현)교사, 수녀 | 음악  | 6                | 6             | 17   |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적 윤리는 ‘돌봄의 윤리’(Naddings, 1984)를 기반으로 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Clandinin, 2015).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첫 번 면담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거부할 권리, 연구에 대한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 익명성, 연구 참여로 인한 어려움 등에 대하여 공지하고 연구에 대한 윤리의식이 연구의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지속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은 연구참여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이며,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가 형성된 장소인 학교에서 만났다. 매 만남 이후에 면담을 통해 녹음된 내용은 전사하여 현장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여 내용이 빠진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작성한 현장 텍스트를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여 잘못 이해되었거나 잘못 기록된 것에 대해 수정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가운데 관계의 민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한 번 더 공지하여 그대로 실어도 될지 혹은 삭제할지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와 협력적 관점에서 함께 진행되었음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장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성한 연구 텍스트는 한 번 더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여 전체적인 흐름의 진행과 내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파견하셨기 때문이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830-831항 참조).

- 가톨릭교회는 가톨릭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가톨릭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루는 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1982)과 함께 봉헌생활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Consecrated Persons and their Mission in Schools: Reflections and Guidelines(2002)의 두 문서와 함께, 가톨릭학교 교육을 위한 봉헌생활자와 평신도의 공동사명에 대한 별도의 문서인 Educating Together in Catholic Schools. A shared Mission between Consecrated Persons and Lay Faithful(2007)을 발표하였다.

### III.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

연구참여자 내러티브는 내러티브 탐구 절차를 통해 작성된 연구 텍스트이다. 연구 텍스트는 이론적 배경에 제시한 ‘가톨릭교육자’와 ‘교사 정체성과 되어가기’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공간이 갖는 시간성, 사회성, 공간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즉,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의 내용은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의 기반인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교사의 일반적 교육활동인 <학습자 이해와 실천>, <교수-학습 이해와 실천>, <학교 공동체 이해와 실천>, <교직 이해와 실천>의 범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가톨릭교육자의 교육활동 공간인 가톨릭학교가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교”로서 “인간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과 일치를 발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완전한 인간 발전에 투신”함으로써 “인간의 진보”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La Scuola Catt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9항).

#### 1. 자기 이해와 실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다른 모습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나는 바오로’라는 그리스도인이며,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여지는 체험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내면화하였고 이 믿음을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신념이나 가치, 관심사, 취미와 같은 개인적 측면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Mockler, 2011). 자신의 개인적 경험,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학교 맥락 및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자기 이해와 실천을 형성한 것이다(Bukor, 2015).

[이사랑]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세례를 통해 가진 가톨릭 신앙은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가톨릭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면서 학습자들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며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바탕이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너무 좋게 보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이제 정말 나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이사랑 면담, 2023.6.12).

[남믿음]은 가톨릭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톨릭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하신 선조와 신학교 입학에 뜻을 두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다. ‘나는 바오로’라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자기 이해는 삶의 기반이었으며, 가톨릭학교에서 교직 생활 내내 학습자 이해나 교수-

학습 활동, 동료관계, 교직에 대한 이해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저는 항상 그래도 마음속에는 나는 바오로 세례명이 바오로이니까 ..... 난 이제 천주교 신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데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그러니까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또 내가 가톨릭학교의 선생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 저는 가톨릭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결국 교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남믿음 면담, 2023.7.5).

[이소망]은 어린시절부터 이어온 악기 공부를 더 하고자 계획했던 유학(留學)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의 뜻에 따라 교육대학원을 입학하였다. 어머니의 기대가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다. 수녀원 입회 이후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가톨릭학교에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되었다.

저는 정말 악기를 통해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제가 찬사를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 저를 도구로 써주시려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발견을 할 수 있어서 그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다시 제 성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이소망 면담 2023.7.17).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였지만 자신의 소중함을 하느님 안에 두는 그리스도교 인간관은 이들이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공통의 기반이며 출발점이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하느님이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빚어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신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인간이 갖는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간 각자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믿음을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삼은 것이다.

## 2. 학습자 이해와 실천: 생명 돌봄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생명을 돌보았다. 하느님의 모상이며 하느님의 숨을 지닌 인간이 생명을 돌보는 일은 창조주의 계획에 순종하는 일이며 창조주를 닮는 일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생명을 돌보는 일은 ‘하느님의 숨’을 지닌 인간인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믿고 계발하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학습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성령의 성전’이라 여겼고,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돌보았으며 학습자들이 지닌 ‘잠재력을 깨우고자’ 하였다.

[이사랑]은 학습자들이 ‘성령의 궁전’이라고 일깨워주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이들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의 궁전, 여러분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이다. 내 몸은. 그래서 일단은 제 몸을 잘 알고, 몸을 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이사랑 면담, 2023.6.12).

[남믿음]은 가톨릭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면서 학습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만나고 ‘마음으로 통하는’ 경험을 하였다. 학습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습자들 각자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학습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내의 일체감을 통해 서로를 함께 돌보았다. 역사 교과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의식하고 바르게 보고 판단하며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분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하는 느낌을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담임할 때 생각하는 기본 전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애초부터 갖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가톨릭학교에 와서 이렇게 학교의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관계 등등을 보면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그런 말을 듣지 말자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고(남믿음 면담, 2023.7.26).

[이소망]은 가톨릭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첫 해에 학습자들과 크게 부딪혔다. 하지만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그들 안에 담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믿음 덕분이었다. 그 믿음은 교과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지닌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잠재력을 일깨우고자 노력하였다. 학습자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소리에 경청하는 자세를 갖도록 도우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협동,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태도를 배우도록 이끌었다.

교육은 ..... 학습자들이 자기 안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잠재력을 깨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리고 옆에서 지켜주는 역할 보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저는 (아이들에게 주는 자극이) 그 아이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전인적인 역량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톡 건드리는 정도의 자극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그 깨달음 그동안의 과거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자극(이소망 면담, 2023.7.24).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그리스도교 인간관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학습자들이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기뻐하도록 격려하며, 삶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발견하도록 도움으로써 세상의 풍성함과 그 너머의 경이로움을 보도록 격려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생명을 돌보았다. 이로써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세상과 은혜로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었으며, 세상을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경험하며,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 3. 교수-학습 이해와 실천: 문화와 신앙과 삶의 통합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교과를 통해 인간의 문화와 역사 속에 담긴 진리를 일깨우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교과의 전문가로서 학습자들에게 생명을 대하는 태도, 역사를 이해하는 자세, 음악을 통한 인간 이해 등 인간의 역사에 담긴 문화와 전통을 가르쳐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보이는 것’을 너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이 가르침의 자리는 자신의 계획과 다른 ‘새로운 길’이었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일이었으며, 나아가 ‘신앙의 여정’이었다.

[이사랑]은 생물 교과 교사로서 생명의 신비를 가르치는 일은 학습자들이 생물 교과 학습을 통해 생명 활동을 잘 이해하고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업방법을 연구하고 무엇보다 생물교과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일러주면서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돌볼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교정에 있는 나무나 이런 거를 볼 때도 채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꽃이 너무 예뻐서 탄다거나 할 때 우리가 그 꽃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냐? 누가 와서 내가 따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첫 시간에 내 수업을 들으면서 생명에 대한 것을 좀 알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동물은 좀 예뻐하지만 식물은 좀 이렇게 인식을 못할 수 있는데... 식물의 예를 들면서 걸을 때 (식물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이사랑 면담, 2023.6.12).

[남민음]은 역사 교과 교사로서 인류 역사에 담긴 보편적인 가치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각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키워주고자 노력하였다. 역사에 흥미를 잃은 학습자들을 고려하는 수업의 내용과 방법은 학습자들과 더 깊이 교감하려는 노력이었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인류 역사 안에 담긴 보편적인 가치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선택

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길러줌으로써 진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역사교사로서) 양심적으로 살고 싶다는 말은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어떤 시각을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것도 연관될 수 있고요 …… 제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수업 중에 아이들과 가급적이면 교감(交感)을 하고 ……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수업을 들으면 제대로만 들으면 별도의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지 않아도 이 과목은 준비할 수 있다 하는 그 수준의 수업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는 게 저는 교사로서의 양심이고 원칙이에요(남민음 면담, 2023.7.12)

[이소망]에게 음악 교과는 학습자 안에 담긴 잠재력을 각자의 모습대로 깨우는 일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수능 교과에 포함되지 않아 소홀하게 다루어지기도 하는 교과이지만 오히려 음악이 담고 있는 세상, 역사, 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삶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교과라고 생각하였다. 음악을 통해 인간 역사를 이해하고 지식의 근원에 이르는 통찰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으며 수업 방법에서도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다른 사람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는 협력의 방법이라는 것도 일러주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소리를 들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신체 타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경청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남의 말을 잘 듣고 그거를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내가 집중했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이소망 면담, 2023.7.24.).

연구참여자들은 각자가 맡은 교과는 달랐지만 모두 자신의 교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기 안에 지닌 능력과 자유를 통해 생명을 돌보는 마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태도, 인간 서로에 대한 배려 등의 책임을 키우도록 이끌어주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일상의 모든 활동을 신앙 안에서 바라보며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성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 4. 학교 공동체 이해와 실천: 친교의 공동체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학교 공동체는 가톨릭학교로서 갖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지역이나 역사, 학교 문화 등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그리스도교 인간관을 바탕으로 가톨릭학교의 목적과 사명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있게 ‘우리 학교는 믿어도 돼’라고 말할 수 있었고, 신입교사들에게 ‘담

임학 개론'을 해줄 강사로 추천받을 만큼 가톨릭학교 공동체 안에서 모범이 되었다. 이로써 가톨릭학교가 동료교사들과 더불어 지역과 세계를 위한 공동선을 실천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연결과 울림'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랑]은 자신을 동료 교사로 존중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선배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학교 공동체 삶을 익혔고 그 자신도 동료 교사와 후배교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바탕이 되었다.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지녔던 긍정과 신뢰, 존중과 감사의 태도는 [이사랑]이 교감으로 추천받아 동료 교사들의 어려움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의 경험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행복했던 고교 시절과 모교 교사로서의 행복을 기억하며 자신이 가르친 학습자들에게 '너희도 너희의 모교이자 나의 모교인 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라. 이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인 것에 감사하였다.

사실 정말 교감하면서 되게 값졌던 건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점을 너무나... 그러니까 그냥 동료였을 땐 몰랐던. 그런 좋은 점을 너무 많이 발견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정말 고맙죠... (교감되기 전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점들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에 빠터라고요. 하나같이(이사랑 면담, 2023.6.17)

[남믿음]은 가톨릭학교의 신자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다. 가톨릭학교에서의 삶은 계산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관계, 학습자들과 부모-자식과 같은 느낌,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형제애를 느끼기 때문에 가톨릭학교에서 교직을 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학교의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해가는 과정에서 학교를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은 교사 공동체가 갖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와 맞물려 시너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천국이다라는 말이 우리 학교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미에서 하는 표현이지요. 근데 그 말에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봤다는 거. 그만큼 우리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뜻인 것 같아요. .... 우리 학교처럼 교사의 어떤 양심과 자기의 어떤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해서 돌아가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 저는 그것도 결국은 뭔지 모르지만 이 가톨릭학교라는 우리 학교만의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남믿음 면담, 2023.7.12).

[이소망]은 학교 사도직을 통해 수도회의 은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더 깊이 체험하였다. 학교 사도직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교육이 지역에 대한 봉사를 넘어 세계

시민을 키워내는 일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졸업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서 행복하게 추억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개인의 효과가 그 딸에게 넘어가고 또 그 딸에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마을 공동체 전체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도회의 정신 사명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만을 쫓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아이들을 정말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요람, 단순히 우리 지역이나, 서울, 한국이 아니라 정말 세계를 위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을 여기에서 키워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이소망 면담, 2023.7.17).

연구참여자들은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과 행동으로써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드러내는”(The Catholic School, 43항) 증거자로서 “다른 이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 그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희망에 대하여 설명하고(1 Pet 3,15 참조), 또 자신이 말한 진리를 스스로 실천”(Benedict XVI, 2005.6.6.)하였다. 이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교적 모범을 통해 학습자들과 동료 교사들이 ‘교회의 탁월함을 경험하도록’(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2021, 29) 이끌었다.

## 5. 교직 이해와 실천: 생명의 교육자

가톨릭교육자는 교회와 세계라는 “이 두 가지 질서에 있어서 동일한 그리스도교적 양심의 지배를 받는다”(Ad Gentes Divinitus, 5항). 연구참여자들에게 교직은 우선적 선택이 아니었다. ‘모교에서 강사로 불러주어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무엇이라도 하려고’, ‘수녀회에서 파견해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가톨릭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가톨릭학교가 갖는 목적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가톨릭학교의 목적과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은 교수-학습을 통한 보람과 기쁨, 학급 운영에 따른 어려움과 극복, 동료 교사들의 신뢰와 배려, 학교 수녀 공동체의 기도와 지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사랑]은 교직생활을 통해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변화를 본다. 학습자들의 자유와 인권이 강조되는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규칙과 질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소중함을 본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만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태도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직은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자신이 모교에서 교직을 시작하고 살아온 모든 날이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교직을 시작한 후배 교사들에 대해 신뢰와 함께 그들이 학습자들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제 생각에는 학교는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선생님도 없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교사라는 직업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 참으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좋은) 모든 경험들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이사랑 면담, 2023.6.12).

[남믿음]은 가톨릭교육이 학습자에게 뿐 아니라 가톨릭교육자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가톨릭교육자연수를 통해 느꼈던 존중, 배려, 사랑, 희심의 체험, 가톨릭교육자로서 가진 깊은 친교의 시간은 가톨릭학교의 사명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였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학교 교사로서 느꼈던 만족감과 존중의 경험들을 다른 교사들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톨릭교육자로 살아가는 매일이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마련하시는 ‘야훼 이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각자 사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거창하지만, 또 소명 의식이 되지만 저는 가톨릭과 연관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말자. 가급적이면 가톨릭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 듣지 말자 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이지요…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야훼 이레’ 하느님이 마련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남믿음 면담, 2023.7.19).

[이소망]은 첫 2년간의 담임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가톨릭교육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은 교사이면서 수녀로서 자신이 왜 학교에 있어야 하는지, 학교 사도직을 하는 수도회의 회원으로 갖는 정체성과 사명을 깊이 숙고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학교 수녀 공동체에서의 삶, 학교 공동체 안에서 동료교사들과 나눈 친교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가톨릭학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해하였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학교의 정신을 위한 거기에 대한 사명감도 좀 가지고 가치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자기부터가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에 대해서 먼저 신뢰할 수가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 저희는 공동체 기도 칠판에 항상 기도해야 할 학습자들 이름, 기도가 필요한 선생님들 그런 거를 올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 교사들과의 친교에 대해서 종교부 교사로서 어떻게 같이 또 동참시키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또 이제 기획적인 것도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조건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세(이소망 면담, 2023.7.24.).

연구참여자들은 가톨릭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가톨릭학교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천하였다. 즉 ‘젊은이들의 전인 양성과 신앙교육에 대한 임무’를 받아 젊은이들이 ‘미래를 그리스도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81항) 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어느 누구도 ‘나는 가톨릭교육자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만나는 학습자들과의 관계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교육활동에서 드러나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존중은 가톨릭교육자의 소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종교적 정체성이 삶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톨릭교사-이기’로부터 ‘가톨릭교육자’로 ‘되어가는’ 과정은 가톨릭교육자의 자기 이해 즉, 그리스도교 인간관에 기초한 종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교육활동과 실천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  
<Table 2> Becoming a Catholic Educator

| 교육자           | 되어가기             | 가톨릭교육자        |
|---------------|------------------|---------------|
| 자기 이해와 실천     |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 |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
| 학습자 이해와 실천    | 자유와 책임           | 생명 돌봄         |
| 교수-학습 이해와 실천  | 진리 탐구와 실천        | 문화와 신앙과 삶의 통합 |
| 학교 공동체 이해와 실천 | 자유와 사랑으로 공동선을 실천 | 친교의 공동체       |
| 교직 이해와 실천     | 전인교육과 복음화의 사명    | 생명의 교육자       |

#### IV. 나가는 글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의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나거나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는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열망, 재능, 적성을 가톨릭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이 소명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학습자들에게 응답할 영감을 주는 ‘내면의 교사’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호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육 소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지닌 가톨릭교육자로서의 소명은 교육활동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희망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Rom 8,24-25) 힘이였다. 이 힘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교육활

등을 통해 ‘삶을 살리는’(Francis, 2019) ‘신성한 특권과 경이로운 책임’(Groome, 2021)을 매일의 삶과 교육활동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가톨릭학교가 갖는 ‘전인교육’과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는 ‘생명의 교육자’로서 ‘되어가는’ 여정을 통해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가톨릭교육자 되어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가톨릭교육자가 지니는 그리스도교 인간관은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의 출발점이며 가톨릭교육자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기준이며, 그의 교육활동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교육자는 학습자가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며, 자신들은 그들의 생명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가톨릭교육자에게 있어서 교수학습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며, 이는 문화와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세상을 ‘성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톨릭교육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과 교육활동을 통해 ‘그들의 믿음 곧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Gal 5,6)을 친교와 모범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지니고 공동선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뿐 아니라 보편적 인간 공동체에 대한 시선을 갖도록 이끌어준다. 이로써 가톨릭교육자들은 가톨릭학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생명의 교육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다.

본고는 가톨릭교육자들에 대한 연구와 영성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는 가톨릭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3명의 연구참여자 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의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의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교사들로, 이 연구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등의 전체 학교급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가톨릭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가톨릭신앙을 가진 신자교사라는 점에서 가톨릭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신자 교사, 신앙을 갖지 않은 교사, 타 종교를 가진 교사의 변화와 성장을 담는 데 한계를 갖는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나, 일부 연구참여자의 신상 보장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서 제안한 한국 가톨릭학교와 가톨릭교육자들에 대한 연구와 양성을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교육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내러티브 이외의 다양한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등에서의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가톨릭교육자들이 가지는 복음화의 사명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교회적 차원의 지원과 지지가 더욱 요구된다. 특히, 가톨릭교회가 가톨릭학교에 대해 갖는 관심을 현장의 가톨릭교육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고등교육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셋째, 교사 양성의 내용에 있어서 가톨릭교육자들이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을 자신의 교육적 바탕으로 삼도록 영성적 차원의 지

원이 더욱 필요하다. 넷째, 가톨릭학교가 추구하는 가톨릭적 특성은 신자 교사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비신자 교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신자 교사를 위한 양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톨릭교육자로 ‘되어가는’ 것은 가톨릭학교의 교육적 목적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의 교육적 활동의 바탕으로 삼는 과정의 문제이며, 가톨릭교육자가 가톨릭 신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References

### [Primary Sources]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9). 성경 (제2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09). *The Holy Bible* (Second ed.).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제2차 바티칸공의회 (2013).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The Second Vatican Council (2013). *Lumen Gentium*.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제2차 바티칸공의회. (2013).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The Second Vatican Council (2013). *Gravissimum Educationis*.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제2차 바티칸공의회 (201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The Second Vatican Council (2013). *Ad Gentes Divinitus*.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1977).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1977). *The Catholic School*.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1982).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1982). *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1997).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1997). *La Scuola Catt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2002). 축성생활자와 교육사명: 성찰과 지침.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교

- 회문헌.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2002). *Consecrated Persons and their Mission in Schools: Reflections and Guidelines*.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2007). 축성생활자와 평신도의 교육사명인 가톨릭학교교육. 가톨릭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문헌.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2007). *Educating Together in Catholic Schools. A shared Mission between Consecrated Persons and Lay Faithful*.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2013). 가톨릭학교의 문화 간 대화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교회문헌.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2013). *Educating to Intercultural Dialogue in Catholic Schools: Living in Harmony for a Civilization of Love*.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2021). 개정 한국 가톨릭학교교육 헌장과 지침서, (사)한국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1). *The Constitution and Directories of Catholic School Education in Korea*. Seoul: The Federation of Catholic Educational Foundation of Korea.
- 교황청 교리서위원회. (1996). 가톨릭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1996).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Secondary Sources]

- Bukor, E. (2015). Exploring Teacher Identity from a Holistic Perspective: Reconstructing and Reconnecting Personal and Professional Selves. *Teachers and Teaching*, 21(3), 305-327.
- Chang, S. H. (2021). A Study on 'Narrative Pedagogy': Focusing on Narrative in the Life History.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9(3), 187-210.
- Choi, J. G. (2005).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Definitions, Objectives, and Method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317-342.
- Choi, J. G., Kim, K. Y. & Weon, S. S. (2008). Strategies for Integration the Catholic Characters into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Catholic,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6. 195-218.
- Cho, Y. K. (2012). The Faith of Catholic Teachers and its Relevance to the Evangelization of Catholic Schools. *Pastoral Studies*, 30, 131-166.

- Clandinin, D. J.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강현석, 소경희, 박민정, 박세원, 박창언, 엄지숙, 이근호, 장사형, 조덕주 옮김 (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엄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옮김 (2015). 내러티브탐구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옮김 (2007). 내러티브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Conway, P. F., & Clark, C. M. (2003). The Journey Inward and Outward: A Re-examination of Fuller's Concerns-based Model of Teacher Developmen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9(5), 465-482.
- Francis, P., & Bergoglio, J. M. *Education for Choosing Life: Proposals for Difficult Times*. 박준양, 조재선 옮김 (2019). 삶을 살리는 교육.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권기돈 옮김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 Groome, T. H. *Educating for Life*. 조영관, 김경이, 우정원 옮김 (2021). 생명을 위한 교육.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Jung, H. J. (2013). *A Study on Identity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ang, H. S. (2020). Multilayer of Bruner's Conception of Narrative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8(1), 213-255.
- Kim, B. C. (2007).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s Life-long Development. *Korea Teacher Education Research*, 24(1), 77-102.
- Kim, D. S. & Kim, K. Y. (2011). A Study of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atholic Kindergarten Teacher about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orea Teacher Education Research*, 59, 137-170.
- Kim, J. K. (2008). Self-recognition in Cyberspace and Performing the Multiple Identity. *Social Theory*, 33, 201-247.
- Kim, K. S. & Chung, M. R. (2015). 'Becoming a Father' of a Father with a Young Child.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2(3), 129-158.
- Kim, K. Y. (2004).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ing.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8, 97-119.
- Kim, K. Y. (2017). Multi-cultural Society and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6. 39-72.

- Kim, K. Y. (2022).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Identity of Korean Catholic Schools. *The Reseach Foundation of Korea Church History*, 61, 137-185.
- Kim, K. G., Moon, M. & Cho, Y. H. (2013). The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Vision on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The Role of Organizational Trust as a Mediator.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3), 115-143.
- Kim, N. H.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Catholic Textbooks in Concordance with Glocal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7, 43-64.
- Kim, S. S. (2015). *A Study on Ontological 'becoming'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rough an Aesthetic Instructional Consul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Y. O. & Kim, K. Y. (2021). The Ministry of Lay Teachers in Catholic Schools: Focusing on the threefold ministry of Chris. *Human Research*, 44, 125-165.
- Koo, B. M. (2009). Implementing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s as Manifested in The Catholic School. *Catholic Theology*, 15, 173-212.
- Koo, B. M. (2011). The Moral Leadership of Principals in School Improvement: The Cases of Catholic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5, 159-184.
- Kwag, E. H. (2021). *Epistemological Interpretation of Narrative Theor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won, H. J. (2022). *Becoming a Teacher of a First-time Teacher in a First-class Class from an Ontologic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Kwon, I. S. & Kim, S. J. (2017). On an Ex-Post Calli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ense of a Calling Driven by Rank in Organization. *Yonsei Business Review*, 54(1), 83-123.
- Kwon, O. Y. (2011). *A Study of the Spirit of Education of Catholic School: In the Case of Korean Catholic High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Lee, J. Y. & Choi, J. G. (2023).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Focusing on KCI Articles Publish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2, 21-39.
- Lee, M. S. & Kim, K. Y. (2017).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About a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4, 117-143.
- Lee, W. H. (2005). *The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MacIntyre, A. *After Virtue : A Study in Moral Theory*. 이진우 옮김 (2021). 덕의 상실. 서울: 문예.
- Mockler, N. (2011). Beyond 'What Works': Understanding Teacher Identity as a Practical and

- Political Tool. *Teachers and teaching*, 17(5), 517-528.
- Noddings, N. (2008). *Happiness and Education*. 이지현, 김선, 김희봉 옮김 (2008). 행복과 교육. 서울: 학이당.
- Park, S. W. (2007). The Meaning of the Process of Narrative Inquiry in Teachers' Teaching Practices. *Anthropology of education*, 10(1), 37-62.
- Park, A. C. (2003). An Analysis on the Researches of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lf-protective and Self-enhancing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17(4), 1-22.
- Seo, K. H. (2017). A Narrative Inquiry on a Teacher's Struggle to Teach for Social Justic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3), 129-156.
- Shin, S. B. & Lee, D. K. (2016). A Story on the to be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with Trying, Failing and Overcoming.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1(1), 1-33.
- So, K. H. & Choi, Y. R. (2019). A Critical Review on Understandings of Teacher Identity Revealed in Korean Education Research. *Korea Teacher Education Research*, 36(3), 289-313.
- Son, J. W. (2013). A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Identity and Internalization of Knowledge. *Theology and Mission*, 43, 249-277.
- Sung, K. S. (2001).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lan and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3, 83-101.
- Won, J. C. (2005).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he Role of Catholic Schools: Centering on the Spirit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2, 98-138.
- Yang, J. Y. & Choi, J. G. (2023). The Reality and Principles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Elementary School, *Human Research*, 50, 327-354.
- Yeom, J. S. (2001). Narrative Inquiry.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2, 37-45.
- Yeom, J. S. (2003). Narrative Inquiry in Educational Research: The Concept, Procedure, and Dilemmas. *Anthropology of Education*, 6(1), 119.
- 안병초 (2013). 교육의 길을 가다. 인천: 마리아회유지재단 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Ahn. B. C. (2013) *On the path of education*, Incheon: Marianist Publishing House.